

손가락 빨리기

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



과나코는 해년마다 1마리씩 새끼를 낳는다. 하지만 꼭 자기 힘으로 젖을 빨리지도 못하고, 새끼도 이상하게 너무 약하게 낳는지 어미한테 달라붙어 젖 달라고 보채지도 못한다. 이토록 둘이 따로 돌아 놀다보니 행여나 해서 지켜보다가 결국 이년동안 두 마리다 놓치고 말았다. 올해는 더 이상 행여나 하는 기대를 안하기로 했다. 그런데 문제는 초식동물의 경우엔 어미가 키울 때의 생존확률이 타 동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데 있다.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아니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으면 어미에게 붙이려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.

요번에도 어김없이 초여름 무렵 어느 날 과나코가 새끼를 낳았다. 그런데 이번에는 웬지 새끼도 잘 일어서고 또랑또랑하며 어미도 젖 먹는 걸 허락하는 것 같았다. 그래서 하루만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. 다음날 역시 내 관심은 온통 과나코 새끼였고 하루 종일 공익요원들과 함께 젖을 빠는 횟수와 새끼의 행동을 낱낱이 기록해 보았다. 아니나 다를까 겨우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만 새끼가 어미와 젖을 빨았고 하루 지나면 빠릿빠릿해야 할 새끼가 비실비실하고 눈도 졸리운 듯 가느다랗게 뜨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기만 했다. 이제 동물원에 온지 얼마 안 된 상사는 계속 지켜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사육사나 나는 힘들 거란 걸 직감



하고 있었다. 결국 말도 안 되는 오랜 실갱이 끝에 겨우 여론의 힘을 얻어 새끼를 끌어낼 수 있었다. -조식사회는 가끔 이렇듯 생명을 가지고도 불합리와 싸우기도 해야

한다.- 일단 진료실에 옮기고 본격적인 인공포유에 들어가려는 데 이 녀석이 낫선 우유병을 전혀 빨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.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, 한 없이 영양제 주사로만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고심 끝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.

목장에서 자체 개발해 쓰던 방식인데 소위 밀가루 반죽법이란 것이다. 원래 소는 약을 먹일 때 큰 병에 물과 약을 혼합하여 큰 소주병 같은 데 넣어 입안 깊숙이 찔러 넣고 먹인다.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가끔 폐로 액체가 넘어가 '오연성 폐렴'이라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하여 위험했다. 항상 이 점이 두려웠던 나는 약을 죽처럼 진득하게 반죽하여 입 전체에다 페인트처럼 발라 스스로 빨게끔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. 동물들은 항상 혀로 자기털이나 기타 혀의 사정범위 안에 붙은 걸 먹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. 심지어 자기 콧물까지도 다 빨아먹는다. 예상했던 대로 역시 10분 만에 하얗게 묻었던 약이 감쪽같이 사라졌었다.

이 기억을 되살리며 분유를 반죽하여 입천장에 손가락을 이용해 잔뜩 발라주었다. 역시 새끼도 혀질을 시작 하더니 금방 묻은 것을 삼키고 맛있는 지 계속 혀를 놀려댔다. 이렇게 서너번 먹이니 금방 정량을 가볍게 먹일 수 있었다. 이렇게 3~4일 정도 지나니까 금방 우유병에도 적응했다. 우유병을 들고 나타나면 졸졸 따라 다니면서 입에 대면 금방 원샷(one shot)으로 빨아 없었다. 그리고 한 달여 동안 건강하게 키운 후에 무사히 어미 곁으로 돌려 보내주었다.

비록 손가락 몇 개지만 얼마든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. '생명살림'은 거창한 진료기구나 시설보다도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아 질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소박하지만 확고한 진실을 점점 더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다.   